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2년 4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끎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 **2022년 4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현 순간에 허락하는 모든 것은 나의 신성한 뜻의 체로 걸러진 것들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뜻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아무도 생명을 주는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너희가 얼마만큼 받아들인냐가 너희의 성화의 깊이를 나타낸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으며, 너희 옆에서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 순간이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너희를 돕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다. 너희가 가장 큰 시험과 시련중에 있을 때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

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2022년 4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험하는 상황이나 문제 들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것들은 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좀 더 많은 참을성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나의 뜻이 보다 깊은 믿음, 또는 나의 뜻에 대한 보다 큰 내맡김으로 너희를 부르면서 모든 문제에서 나의 뜻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아라.”

“나는 언제나 모든 상황의 핵심에서 너희와 함께 하며 각자의 뜻을 나의 승리의 길로 이끌고자 노력한다. 너희가 원하는 해결책을 위해 기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뜻에 의탁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2년 4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 아침 너희에게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세상의 마음과 접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나의 기회인 것이다. 각각의 메시지는 가르침과, 변화를 추구하고 의로움 안에서 안정을 찾으라는 격려와, 진리의 확증이 담겨 있다.”

“악의 영향이나 방해 때문에 멀어지지 마라. 각 영혼에 대한 나의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성지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가 세상의 영향을 떠나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너희를 불러야만 한다. 나는 이 메시지는 수단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 2022년 4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오늘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절박함을 나타내는 또다른 반증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만약 이 계획들이 실행된다면 지상의 삶은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 악은 악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더이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사람들은 나의 계명들을* 받들거나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는다.”

“(중도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된 유익하고 좋은 영감들은 악의 성공보다 덜한 평판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을 행할 마음이 들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크게 중시되고 있다.”

“나는 다시 한 번, 사람들의 마음속과 세상에서 나의 신성한 뜻이 승리하도록 온 인류가 일치하여 기도하기를 촉구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만족하지 마라. 이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려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 2021년 6월 24일 - 7월 3일까지의 메시지 참조:

■ 2022년 4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혼이 세상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상의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행복과 안전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기초를 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근거해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과 공격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 대신 정직하지 못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의 일상 생활에서 나의 계명들에 따라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고수하여라. 이 안에 너희의 평화와 안전이 있다.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논란에 흔들리지 마라. 다른 이들이 너희를 설득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너희의 의무에 대한 진실에서 너희 마음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라. 굳건하여라. 나의 ‘남은 신자들(Remnant)’의 일부가 되어라.”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2년 4월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선택하기 바란다. 거룩함은 모든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신경 쓰지 마라. 하루 종일 기도를 목표로 삼아라. 너희는 오직 너희가 원해야지만 거룩함의 계단을 오를 수 있다.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은총의 문들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너희의 거룩함을 촉진하도록 너희 삶 속에 사람들과 상향

들을 보내겠다. 자기 포기(self-surrender)는 더이상 덜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너희가 (원해서) 선택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함에 있어서 너희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새롭고, 보다 깊은 관계가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2-15)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2022년 4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각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은총에 마음을 달아버림으로써 현 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은총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원한의 짐을 너희의 심판에까지 지고 가지 마라. 또한, 현 순간은 어떤 죄지를 기회를 극복하는 승리를 너희에게 베풀 수도 있다. 그것을 움켜잡아라. 현 순간은 결코 똑같은 은총과 기회를 가지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얼마나 작은 것이든, 각 은총이 너희에게 다가오는 대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붙잡아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거나, 일어날지 아닐지 분명하지 않은 공격에 대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현재에 너희에게 주는 모든 은총에 현재를 의탁하여라. 이것이 미래에 대한 너희의 준비다. 그런 다음 나의 자비를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2년 4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

씀하십니다. “각 영혼은 자신의 영원한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상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할당 받는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낭비된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영혼이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진리 안에서 사는 법을 더 빨리 배울수록 사후에 그가 받을 보상이 더 크다. 각각의 현 순간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다. 영혼들은 흔히 자신의 영원을 고려해보지 않은 채 속세적인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것은 사탄의 함정이다.”

“언제나 너희 영혼이 심판 받기 위해 천국의 문 앞에서 있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현 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너희 천사가 곁에서 도울 것이다. 그의 긍정적인 영향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라.”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2년 4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기도와 희생의 계절이 되게 하여라. 무능한 지도부는 세상에서 잔혹한 행위들이 일어나도록 조장하였다. 나는 러시아와 이 나라의 부족한 지도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너희 대통령의* 나약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부추겼다. 이런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는 이 나라의 대응 미흡을 미리 예상한 바에 따라 측정되고 실행되었던 것이다.”

“정치는 오직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만 바뀔 것이다. 정치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 이런 큰 피해를 초래하는 부족한 지도부는 나의 진노를 불러들인다. 이런 부족한 지도부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들은 매우 심각한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6)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 조 바이든 (Joe Biden)

■ 2022년 4월 10일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계명들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과 구원의 기초다. 나의 계명들을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계명들을 습득해 너희 것으로 만들고, 계명들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순종하기 위한 너희의 가장 약한 노력도 칭찬할 만하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받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보답으로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길 원한다.”

“나의 계명들을 사랑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2)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거룩한 사랑이란’ 전단지:

<http://hollylovekorean.com/xe/data/79238>

■ 2022년 4월 11일 - 성주간 월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성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나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성찰해보도록 초대한다. 바라건대, 너희 마음이 세속적인 걱정으로 묶여 있지 않고 천국에 집중하고 있기를 바란다. 천국은 너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곳이다. 너희의 가장 큰 보물이 천국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이 보물은 너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을 합친 것이다. 이 보물은 다른 모든 이에 대한 너희의 용서와,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의 진리에 대한 너희의 믿음으로 장식된 보물이다.”

“너희가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 천국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속세의 기쁨이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에게 진정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은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이다.

나는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을 더 증진시키고, 너희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너희의 그 사랑에 보답한다.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에 너희의 신뢰를 두어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10)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2022년 4월 12일 - 성주간 화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활절 날 너희에게 올 나의 아들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너희 자신에게서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용서 못함과 분노를 없애라. 부활절이 부활절 날 아침 너희가 무덤으로 달려가 되살아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하여라. 나의 진리를 발견했던 이들에게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가장 위대한 축일을 기념하기를 원한다. 우리 서로 영적으로 함께 하고 모든 문제를 잊으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도록 하자. 너희는 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나의 도움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램으로써 나를 찾아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8:1-7)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마르 16:1-8)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 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겹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4:1-9)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 성경 구절 독서 (요한 20:11-16)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

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 2022년 4월 13일 - 성주간 수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악을 저지르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악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너희가 기도해주기를 청한다. 잘못된 양심은 죄 없는 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이자 악의 수단이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사악한 목표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인신매매범들이 육식 조류처럼 이 아이들을 불시에 덮치고 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의 깨우침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부디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이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거룩한 성모는 내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예수의 성체 성심에 이 아이들의 복지를 탄원하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어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17)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마다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 겁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22년 4월 14일 -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게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에 내맡겼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예수는 자신이 겪을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알고 있었다.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 영혼들 중에 자신의 고통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이들이 누군지도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너희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나 희생이 현 순간에 나타날 때마다 예수의 모범을 본받아라. 이것이 너희가 지상에서 사는 모든 현 순간을 성화시키는 방법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2022년 4월 15일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자기 포기과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불꽃이 너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라. 너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겨라. 이것이 나의 아들이 수난과 죽음을 겪는 내내 지녔던 마음가짐이다. 이것이 예수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겪었던 그 고통들을 겪어 낼 수 있었던 방법이다. 십자가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너희의 희생을 희석시키도록 허락하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3:46)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 2022년 4월 16일 - 성토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아들과 온 천상은 예수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이것은 세상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그의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 자신이 이 승리의 일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축하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32-33)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 2022년 4월 17일 - 주님 부활 대축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나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부활의 진리가 너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주게 하여라.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고, 죽음은 정복되었다. 너희 구원의 원수는 패배하였다.”

“너희의 마음과 삶을 이 진리의 기쁨 안에서 사는 것에 맞추어라. 너희의 모범으로 다른 이들도 이 기쁜 진리로 이끌어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의 시작이다. 알렐루야! 기뻐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남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2년 4월 18일 -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함께 모여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에 충실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기 바란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진실하며 참되다. 나는 너희 각자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희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천사들과 성인들은 너희가 지상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 그들은 너희가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너희의 선택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너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너희를 나에게로 더 가까이 데려오거나 아니면 너희를 나의 품에서 더 멀리 데려간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이 순종이 천국에서 너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살라고 너희를 창조하였다. 너희의 천사들이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도록 허락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2년 4월 19일 - 부활 팔일 축제 화요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인류가 내 자비의 품에 달려들기 바란다. 이 안에 너희의 지지와 해방이 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자비를 필요로 한다. 나에게 의지하여라. 내 자비는 너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다. 내 자비가 없다면 영혼들은 멸망으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그들이 (내 자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구할 수가 없다. 아주 조금이라도 내 자비를 애원하려는 의향이 있다면 영혼을 구하기에 충분하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9:1-8)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곳으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평상에 눕혀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

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 **2022년 4월 20일 - 부활 팔일 축제 수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일요일에*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나는 내 아들에게 그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지만, 나 또한 세 가지 축복을 주기 위해 참석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살펴 용서못함이나 원한, 분노나 혼란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들은 모두 사탄의 도구로서,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축복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나의 축복은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 인간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와 화해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간에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세속적인 걱정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라. 언제나 나의 안배를 신뢰하여라.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도록 너희를 이곳으로 부르는 이는 바로 나다.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2-17)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미는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된’ 축복)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 되신 성심의 메시지’의 공지 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 21일-23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4월 24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자녀들아, 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바로 내 신성한 자비다.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사랑은 하나다. 너희가 이 둘 중 하나에 의탁하면 세상의 미래는 영원히 바뀔 수 있다. 내 자비는 세상을 악으로부터 정화하고, 내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내 사랑과 자비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진노도 하나다.”

“사람들의 마음이 오류를 깨닫도록, 그리고 전쟁을 멈추고 질병을 이겨내도록, 내 신성한 자비의 도움을 구하여라. 모든 것을 정복하는 승리의 칼로서 내 자비를 너희 손에 들고 너희 마음속에 품고서 간청하여라. 나는 원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며, 그를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지도 안다.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모든 방면의 갈등을 드러낼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나의 자비에 호소하지 않는 영혼은 불행하다. 그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런 영혼은 나를 알지 못하며, 내 성심 안에 품고 있는 그를 향한 나의 큰 사랑도 알지 못한다. 나는 나에게 속한 이들을 내 자비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알아본다. 나는 그들을 내 낙원으로 이끈다.”

“너희 마음이 내 자비에 사로잡히게 하여라. 결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용서를 신뢰하여라. 너희가 내 자비 안에서 살 때, 나는 너희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너희 하나하나의 내 자비에 의해 세상에서 나의 도구다.”

“내 자비는 세세대대로 이어진다. 내 자비는 영을 새롭게 하고 생기를 되찾아주며, 짓밟힌 이들을 위로해준다. 인류를 나와 화해시키는 것은 바로 내 자비다. 지금 이 시대는 내 신성한 자비의 시대다. 나는 내 자비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비해 현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 진노는 위로받을 수 없지만, 내 자비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내 자비는 너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은총은 다 내 자비의 열매다. 내 신성한 자비에 헌신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천사 한 명이 추가로 그들과 함께 한다.”

“인류는 내 자비가 없는 세상을 감히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세상에는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

패가 목표가 되고, 온갖 종류의 범죄가 일반적인 것이 되고 흔한 일이 된다. 또한 어떤 은총도 없으며, 내 신성한 성심에 의지하는 일도 없다. 그렇기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나는 내 신성한 자비를 통해 내 신성한 성심의 지성소(至聖所)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평화롭게 살라고 각 영혼을 부르고 있다. 내 성심은 모든 자비이자 모든 사랑이다. 여기에 내 자비를 통해 너희의 모든 해결책과 모든 안전과 문제 없는 사회의 원천이 있다. 너희가 내 신성한 자비에 따라 용서와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는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너희 것이 된다.”

“오늘 나는 너희 마음과 삶 속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세상에서 내 자비를 기념한다. 나는 너희가 지체없이 내 자비로운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내가 모든 영혼 안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자녀들아, 내 성심의 자비 안에 머무르면서 평화를 누려라. 서로 용서해 주고 화합하며 살면서 내 자비를 실천하여라. 내 자비는 머지않아 정의(심판)의 시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오늘 나는 내 자비를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청하며 너희에게 왔다. 내 자비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를 설득하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언제나 뉘우치는 마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곳에 온 많은 이들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내 응답을 깨닫지 못하여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내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도록 청한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천상의 아버지께서 이제 당신의 ‘세 가지 축복’을 베푸십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6-13)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 2022년 4월 2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어제 이곳에서 있었던 기도 운동 때문에 매우 기쁘다. 계속해서 매일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은 탐욕과 전쟁의 참혹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각 나라는 나의 뜻에 따라 저마다 장점을 부여 받았고, 약점도 지니고 있다. 기도는 은총 안에서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이다.”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영적으로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그때야말로 여러 정부들이 그리스도적 사랑 안에서 힘을 합쳐야만 한다. 내가 매 현 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라. 너희의 계획 안에 나의 뜻을 포함시켜라. 너희 개개인의 장점들을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승리를 위해 사용하라.”

“어제와 같이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3)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 2022년 4월 2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자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의 자비가 너희를 감싸 안을 것이다. 그때에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너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나는 너희에게 나의 은총을 더 많이 베풀어줄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목표를 이루도록 영감을 받는 것은 바로 나의 은총을 통해서다. 작은 은총의 순간들이 큰 선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언제나 그래왔다.”

“지난 주말에는 많은 회개가 일어났다. 일부 믿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믿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발현 성지가 참되다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티토 3:7)

그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 2022년 4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현 순간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데 사용하여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며, 너희가 더욱 깊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보다 나를 기쁘게하기를 원하는 이의 기도를 훨씬 더 빨리 귀담아 듣는다. 나를 기쁘게 해 주려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봉사한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4)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2년 4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비에서 위안을 구하는 영혼들은 지금 이 어지러운 시대에서 두려움에 굴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영혼들은 나의 안배를 신뢰한다. 또한 유망한 미래를 내다보고 용기를 낸다. 그들은 나를 엄중한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여긴다.”

“바로 이 사랑 가득한 아버지가 인류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모든 이에게 이 시대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나의 애정어린 보살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의 품 안에서 용기를 얻어라. 지금(현재)은 잘 예측할 수 없는 나의 해결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아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4: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 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2022년 4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의 용감한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들은 이 나라에서 교회 당국에 의해서까지 불신 받는 이들이며, 중국과 같은 머나먼 나라에 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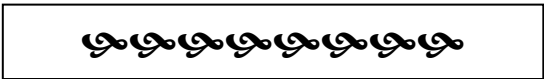
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안위가 위협을 받는 이들도. 거룩한 사랑의 전제는 오직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만 위협이 될 뿐이다. 이들은 나를 알게 되거나 나의 계명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룩한 사랑을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이들에게는 매 현 순간이 순교이며, 이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대를 받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들이 용감하게 거룩한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인내하도록 기도하여야.”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1-7, 13)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사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2022년 4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해 주고자 하는 너희의 의지를 굳건히 다져라. 아침에 너희의 거룩한 천사를 통해 나에게 보내는 너희의 사랑 가득한 한 마디가 나의 성심을 따뜻하게 해 준다.”



세 가지 축복 기도 카드를 5개까지 주문하시려면 자기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 (일반 흰색 편지 봉투 사이즈 #10: 4-1/8" x 9-1/2") 를 아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우편에 사용되는 우표:
\$0.58 CENT FOREVER STAMP 한 장

국제 우편에 사용되는 우표:
\$1.30 GLOBAL FOREVER STAMP 한 장

위의 두 가지 우표 모두 우체국 (US Postal Service)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oly Love Ministries
Attn: Free Triple Blessing Card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 기도 카드는 편지 봉투 하나당 5 개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e Triple Blessing of God the Father



“My Triple Blessing will be given only off and on, and randomly. I will bless with My Triple Blessing a large volume of material or paper privately which will be freely given out to those who come on pilgrimage. People can take a small amount to others who cannot come here.”
(God the Father - July 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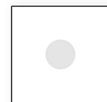
Blessing of Light illuminates the soul as to where he stands before God.

Apocalyptic Blessing prepares the soul for changes as yet untold or experienced in life. It places a desire in the heart to come closer to God the Father in every way, opening the heart for a desire for conversion. It gives souls knowledge to accept change and adversity with peace.

Patriarchal Blessing carries with it the gift of discernment from good and evil and draws the soul deeper into the Paternal Heart of God the Father and into union with the Divine Will.

www.holylove.org/tripleblessing/

This cloth has received the Triple Blessing from God the Father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 North Ridgeville, OH 44039
440-327-8006 ■ www.holylove.org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저녁 7시

기도 모임에서 천상이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베풀 때마다 기도 모임 참가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의 혜택을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GIFT SHOP)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 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 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자 신비주의자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10: 4-1/8" x 9-1/2")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TWO-OUNCE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목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lylovekorean.com (웹사이트)

생명을 위한 묵주

... 예수님: “내 형제 자매들아, 태아묵주는 낙태죄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너희에게 주어졌다.
대담하게 이 묵주를 전파하여라. 내 자비의 두 팔은 이
묵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펼쳐져 있다.” (2007년 5월 13일)



magnified view of bead

태아 묵주기도를 바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영구한 낙태 종식을 가져오기 위해 기적의 태아
묵주기도를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아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이 매우 특별한 묵주에 대한
설명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전화 문의: 440-327-4532

